

뉴욕 투표권 확대 연맹

71-34 Roosevelt Avenue, Lower Level _ Jackson Heights, NY 11372 _ www.immigrantvoting.org

민주주의를 확대하십시오: 모든 뉴욕 거주자들을 위한 투표권을 철상 복구시키십시오

뉴욕시는 현재 아직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투표 가능 연령에 속한 1,361,007명의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투표 가능 연령에 속한 매 5명의 뉴욕 거주자들 중에 1명은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의 거주자들로서 그들은 시민권자들처럼 모든 동일한 법률의 통치 대상입니다. 그들이 시민권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이 시의 경제적 역동성과 사회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이 시의 -비공식적인 세계의 수도- 삶에 기여합니다. The Urban Institute에 따르면 -Washington에 근거를 둔 비영리 조사 및 정책 연구 단체- 이민자들은 년 단위 기준으로 182억불의 세금을 혹은 주의 세금 수입의 15.5%를 납부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민권자임의 여부 때문에, 이 새로운 뉴욕 거주자들은 그들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책을 만드는 그들의 대표자들을 뽑는 과정으로부터 제외됩니다. 정치적 참여로부터 이처럼 중요한 인구의 한 부분을 제외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건전함을 해치고 이 새로운 미국인들이 그들의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쟁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를 인식함으로써, 지역사회 단체들뿐만 아니라, 이민자 및 종교 단체로 구성된 연맹, 노조, 민권 및 투표권 단체들이, 그들의 시민권자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뉴욕시 거주자들을 위한 투표권 회복을 옹호하기 위해서 함께 나섰습니다.

정책으로서 거주자 투표는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미국혁명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원칙입니다: "대표 없이는 세금도 없다."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들에게는 이민자 참정권은 신생 미국 민주주의에 새로운 이민자들이 관심을 갖도록 권장하기 위한 논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미국 역사의 대부분 동안 -1770년부터 1920년까지- 22개 주들과 연방 관할 지역들은 비시민권자 신분의 거주자들이 지역, 주, 그리고 연방 선거에서 투표하고 시의회 의원, 검사관, 학교 위원회 멤버 등과 같은 공적인 직책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뉴욕이 주와 지역 선거들에서 비시민권자 신분의 이민자들의 투표할 권리를 거부한 것은 1804년의 일입니다.

초기에는 투표권이 재산을 소유한 백인들에게만 적용되었으므로 아프리카-아메리칸, 여성, 혹은 대부분의 노동자 계급 이민자들은 투표권을 향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전체 유권자가 확대되었고 이민자 투표는 정치적 지배 계급들에게 새로운 위협이 되었습니다. 1880년대 초기, 대량의 남유럽 및 동유럽 이민자들이 -그 당시에는 전혀 "백인"으로 취급되지 않았던-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사회적 이동 및 제 3의 정치 세력의 태동, 1870년의 흑인에 대한 그리고 1920의 여성에 대한 참정권의 확대, 그리고 신흥 산업화 사회에서 급격한 노동자 계급 유권자의 확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강력한 사회적 조류들과 더불어 지배적인 정치 질서를 위협하면서, 이 같은 대량의 이민은 4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유권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 계급은 여러 가지 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한 수단들을 강구하였습니다: 문자 해독 테스트, 인두세, 엄격한 거주 및 주민 등록 요건, 그리고 이민자 참정권의 중단. 1900년 이전에는 투표 가능 연령 인구의 80%가 투표하던 것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1924년에는 오직 투표 가능 연령 인구의 49%만 투표할 수 있었을 만큼 이런 장치들은 엄청난 수의 미국인들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거부하는데 있어서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정보는 재류중인 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미국 시민이 아니라면 현재는 투표를 위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그것은 추방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Translated by the Asian/American Center of Queens College
with funds provided by the Queens Borough President Helen Marshall

미국 역사에서 모든 권력을 보유하지 못한 집단에게, 투표권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공민적 권리 획득을 위한 그리고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절대적인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아프리카-아메리칸, 여성, 그리고 18세에 전까지는 참가해야 하면서도 투표는 하도록 허용되지 않았던 젊은이들에게, 투표에 대한 법적 장애물들을 타파하는 것은 평등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투표의 중요함을 인식함으로써, 민권 운동의 지도자들은 인두세와 문자 해독 테스트의 철폐를 이끌어 냈습니다. 1971년에는, 투표 연령이 18세로 낮춰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부분이 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대량 이민이 있는 지 30년이 훨씬 더 지난 오늘날, 거의 2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의 비시민권자 신분의 이민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경제의 모든 부분들에서 일하고, 사업을 하고, 그들의 어린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우리의 문화적인 삶에 무수한 방법들을 통해서 기여하고, 군대에서 복무하며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 대부분은 그들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칠 쟁점들에 대해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투표권 확대는 보다 살기 좋은 미국의 건설이라는 공동의 꿈을 향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결집하기 위한 논리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들의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그들이 보다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들 새로운 뉴욕 거주자들에게 투표권의 허용은, 시민권의 대체물이 아닌, 공적 교육 및 참여를 증진시킬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대다수 이민자들은 시민권자가 되길 원하지만, 신청서 처리의 적체는 이민자가 시민권자가 되려면 평균 10년 혹은 그 보다 더 긴 시간을 기다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많은 지역사회들은-전세계 22개 이상의 나라들을 언급할 것도 없이-지역 거주자들이 그들의 시민권자 신분과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하는 이런 명료한 이유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최소한 12개의 다른 지역사회들이 투표권을 비시민권자들에게까지 확대하려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Maryland가 5개의 타운에서 비시민권자들이 시의 선거들에서 투표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Massachusetts의 Amherst와 Cambridge는 그들이 아직 그것에 효력을 부여할 주의 법을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비시민권자 투표를 허용하기 위한 투표를 하였습니다. San Francisco, Washington DC, Denver, 그리고 Connecticut 등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2개의 다른 지역들에서 유사한 주도적인 움직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들의 그들 어린이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천명했던 조치를 통해서, 뉴욕시와 Chicago는 비시민권자들의 투표권을 학교 위원회 선거들에서 회복시켰습니다. 뉴욕시에서는,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모든 이민자들이-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의 거주자들과 서류 미비 이민자들-1970년부터 학교 위원회가 없어진 작년까지 학교 위원회 선거들에서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위원회와 관련한 문제들과는 별개로, 그들은 인종과 민족이라는 측면에서 시의 가장 대표성이 있는 선출된 조직이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과 이민의 상징인 Ellis Island의 본고장인 뉴욕은 이민 국가로서 미국의 과거와 미래를 상징합니다. 시의 선거에서 모든 거주자들에게 투표권을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그리고 이민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에 딱 어울리는 모범을 만드는, 뉴욕시에 잘 어울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정보는 계류중인 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미국 시민이 아니라면 현재는 투표를 위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그것은 추방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